

[서식3]

독도동아리(팀) 활동 요약서

동아리 (팀)명	독도는 늘예솔
----------	---------

❖ 목적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 독도교육의무화를 앞당겨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하였다.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 주장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각종 세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독도는 늘예솔' 동아리는 독도 수호의식 함양은 물론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을 근거를 갖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독도와 관련한 내용지식을 익히고, 그 의미를 새겨보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동아리 노력

독도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한 후, 활동할 것을 함께 정함. 첫째,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사이트에 있는 우리영토인 근거를 알아보고 독도 동영상 함께 시청함. 또한 독도웹툰 '여기는 독도' 읽고 문제를 함께 읽고 친구들과 함께 독도에 대한 기본 상식과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봄. 둘째, 독도 달력을 만들면서 독도사랑과 함께 독도의 날을 확인하고 자신의 일 년 플랜을 계획해보는 시간을 갖음. 셋째, 독도컵을 만들어 직접 사용해보고 친구들에게 홍보함. 넷째, 여름을 맞이하여 독도 부채 및 독도 목걸이를 만들고 사용해봄으로써 독도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주변친구들과 함께 독도 수호의식을 함양함. 다섯째, 독도는 늘예솔 이라는 동아리 명을 이용해 육행시를 지어봄. 보다 독도에 대한 사랑과 의식이 담기는 내용을 담고자 노력함. 여섯째, 독도 필통을 함께 만들어보고 사용함으로써 친구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갖음.

❖ 특색있는 독도체험 및 홍보활동 사례

1. 독도컵을 만들어 사용하기
2. 독도 달력을 만들어보고, 독도의 날을 확인하기
3. 독도 부채 및 독도 목걸이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주변 친구들에게 독도 수호의식을 함께 나누기.
4. 독도는 늘예솔 이라는 동아리 명을 이용한 비주얼씹킹과 육행시 활동을 전개. 이를 통해 독도의 의미를 새겨보도록 함.
5. <여기는 독도> 책을 읽고 독도의 기본 지식, 어떤 방법으로 독도를 지켜왔는지, 우리 역사적 증거를 살펴봄으로써 독도에 대한 전문 지식을
6. 독도필통 만들기
7. 위 활동들을 담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메시지로 홍보하거나 공유함.

❖ 주요 성과

1. 독도필통이나 독도컵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용하자, 주변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갖음. 또한 다시 한 번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됨.
2. <여기는 독도>를 읽고 독도의 주요 특징과 역사적으로 독도가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일본의 주장에 근거를 갖고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됨.
3. 독도 달력 만들기를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은 물론, 1년 계획을 세워보는 계기가 됨.
4. 독도 관련 활동을 함으로써 '독도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도 독도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됨.
5. 독도 부채 및 독도 목걸이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주변 친구들에게 독도 수호의식을 함께 나눔.
6. 독도는 늘예솔 이라는 동아리 명을 이용한 비주얼씹킹과 육행시 활동을 전개. 이를 통해 독도의 의미를 새겨보도록 함.

❖ 소감 및 일반화 계획

처음으로 독도 동아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과 중에 독도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한 뒤, 한 달에 1~2번 정도의 모임을 가졌다. 처음엔 독도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독도 관련 활동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독도 활동에 관심을 갖고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도 박물관체험이나 실제 독도에 가봤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활동이 어렵다 보니, 주로 시청각 매체를 이용하거나 책을 이용해 독도를 알아가려 노력했다.

우리 동아리의 활동은 주로 독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갖고 일본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도록 소양을 함양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독도와 관련한 여러 활동을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독도사랑 활동과 홍보에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동아리의 가장 큰 한계는 학생들이 sns를 잘 활용하지 않은 편이어서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는 정도에 의의를 갖는 것에 그친 점이였다.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능력이 있으면 sns에서 영어로 우리의 독도 활동을 게재하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보다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